



스포츠 메카 화순,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배드민턴·야구·축구팀 이달부터 훈련 돌입



스포츠의 메카 화순에서 본격적인 동계 전지훈련이 시작됐다. 화순군은 전국 우수초등학교 배드민턴팀을 시작으로 유소년 야구단, 전국 초등학교 끝나무 배드민턴 대표팀, 전국 초등학교 축구팀 등 동계 전지훈련팀이 훈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

까지 2일간, 전국 초등학교(대전 배봉초, 인천 능하대초, 강원도 원주초, 광주 풍암초) 배드민턴팀 선수 100여명이 이용대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마쳤다.

전국 초등학교 팀은 훈련기간 동안 화순만연초, 제일초 배드민턴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기도 했다. 또한 유소년 야구단 7팀이 오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전지훈련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끝나무 배드민턴 대표팀과 전국 초등학교 축구팀 10팀이 1월에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다. 지난달에는 28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전국 우수초등학교 야구팀 10개교 313명이 참가해 전지훈련을 했다.

화순군은 온화한 기후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 인접한 숙박시설, One-Stop 서비스 지원 등으로 전국에서 배드민턴을 비롯해 야구, 축구, 복싱 종목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지훈련팀이 화순을 찾고 있다.

특히 배드민턴 국가대표 및 청소년 팀의 전지훈련 정례화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치해 저비용 고효율의 실적을 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충근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학교체육과 연계해 배드민턴, 야구, 축구, 복싱 종목의 전지훈련 팀을 집중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오는 30일 개관

어린이들이 읽고 놀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



광양시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광양희망도서관'이 오는 12월 30일 역사적인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상 3층 규모로 광양읍사무소 건너편에 지어진 광양희망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읽고 놀고 체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마련됐으며, 정식 개장은 내년도 1월 2일이다.

시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영유아자료실과 유아실, 어린이자료실, 햇살가득, 책동굴, 동화구연 체험방, 끝나무 극장 등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각실의 명칭을 지

었다.

특히,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도서를 비치하고, 가구와 각종 비품 또한 안전과 즐거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으로 비치했다.

행사당일 오전 10시 3층 끝나무 극장에서 샌드아트와 미술의 만남 공연을 시작으로 야외에서는 개관을 알리는 제막식, 테이프 컷팅식과 희망종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주요내빈과 도서관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 축하동영상과 명예도서관장 위촉, 동화책읽기, 시인 축하와 낭독이 이뤄진다.

아울러 개관기념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미우작기를 초청해 북아웃(사탕과물) 공연과 가

상수족관 체험, 불려 열쇠고리 만들기, 풍선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작은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아이들이 이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송홍철 문예도서관사업소장은 "희망도서관을 어린이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과 문화체험의 도서관으로 운영하겠다"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독서생활화와 학습 활동을 지원해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도서관 개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서관지원팀(☎797-3835)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충권 기자

나주시, 금성산 활용 '국립나주숲체원' 조성 본격 추진

2020년 5월 완공 목표

나주시가 시민을 위한 산림복지사업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국립나주 숲 체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나주숲체원'은 도심 속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녹색자금(복권기금)200여억을 투자,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일대 58ha부지에 건축면적 3218㎡, 지하층·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5년 6월 해당 부지가 대상지로 확정됐으나, 그동안 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정체됐었다.

이날 나주시와 한국산림복지진흥

원에 따르면 지난 2월 토지 매입절차를 완료한 이래, 10월 본 사업을 발주, 업체 선정을 완료했다.

이달 말 공사를 착수해 오는 2020년 5월 건축물 완공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숲체원은 도심에서 쉽게 숲과 나무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 산림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순천시 올해 농산물 수출 73억 돌파

내년 수출 100억 달성 위해 총력 다할 것

순천시는 지난 11월말을 기점으로 올 해 농산물 수출 73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해마다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한 후 상반기에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하반기에는 미주시장 해외 판촉행사, 홍콩 아시아 농산물 박람회, 일본 자매결연도시 우호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관내 농산물(신선, 가공)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

생산농가와 순천시는 한뜻으로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과 행정적 지원'의 보폭을 맞춰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목표 70억을 11월말에 이미 달성했다.

지난 2014년 미주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해마다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2억원에서 2016년 54억

원으로 늘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과실류(참다래, 배, 단감), 김치류, 장류, 한과류, 매실가공품, 함초소금 등이다.

특히 작년 4월에 결성된 가공수출 생산농가 자율모임체인 '순천시 농식품 가공수출발전협의회(38명, 회장 조영식)'의 선진사례 견학, 시장조사, 품목발굴 및 회원간 정보 교류를 통해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지난 5월에 준공한 '농산물 가공센터 및 청양보육센터'를 이용해 여러 시제품을 통해 해외시장의 다양한 입맛을 공략하고, 지난해 개장한 외서 절임배추·수출무 공동작업장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수출 농가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점시설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내년에는 600년 전통의 순천매실 가공품도 중국 시장 진출의 청신호가 켜지고, 한류 열풍에 이은 한식 문화가 확대되는 동남아 시장 역시 블루오션의 기회로 삼아 활발하고 안정적인 해외 수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정책과 박승조 과장은 "올해는 미주 시장의 캘리포니아, 애들랜드, 시카고, 뉴욕시장의 한인마트에 관내 농산물이 모두 입점하여 미주 전대륙을 아우르는 수출망을 구축했다. 또한 동남아 자유무역항 홍콩 국제박람회 참가, 일본 자매결연도시 이즈미시에 순천 농특산물을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수출 대상국의 트렌드와 소비 선호도를 분석하여 다양한 제품 발굴 및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출 관료에 최선을 다해 내년 농산물 수출 100억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최우수상' 영예

청년 창업·창직, 각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성공적 추진



순천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최한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일자리 인프라 개선 부문에서 최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정책기조를 반영해 신규 추진한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 실적을 심사 받은 결과

이뤄진 결실이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전영재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청춘참고, 청춘웃장 등을 통해 청년 창업·창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근로자 무료 통근버스 운행 및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각종 근로 환경 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기존 일자리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그 공을 인정받아 올 한 해 동안 중앙 및 도 단위 일자리 부문에서 다섯 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김종영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인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